

아낌없이 주었던 원력... 당신이 그림습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18일 대행선사 3주기 다례재 봉행

문도 스님 등 3천여 대중 참석
육성 법문 들으며 가르침 되새겨

“상상할 수 없는 원력 불사하신
선사의 유지, 계승·발전해야”



스님들이 모공당 대행 선사의 <뜻으로 폰 천수경>을 합송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각령전에 절을 올리고 있다.

“뫼뫼이로 볼 때는 죽는다 산다가 있다. 그러나 본래 나온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도리는 영원한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와도 오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 ‘뫼다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 뫼다’ 하는 것뿐이다. 가라앉았다 뫼다하는 작용과 굴레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한국 불교 포교사에 한 획을 그었던 모공당 대행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이 울려 퍼졌다. 상구보리 화회중생의 원력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신 스님의 법문이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모공당 대행 스님 3주기 추모 다례재가 5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엄수

됐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승묵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스님, 한마음선원 문도를 비롯해 국내외의 25개 지원 문중 스님, 최태호 前 안양 시장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 혜원 스님과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등은 헌다와 헌화, 헌향을 하며 대행선사 열반 3주기를 추모했으며,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불교 포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선사의 업적을 찬탄하며 그 유지를 계승할 것을 문도와 대중에게 당부했다.

지형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나서 승단이 구성된 후, 전법의 길을 펼치라는 전도 선언을 하셨다”면서 “선사께서는 한국 불교 포교사의 큰 획을 그으셨으며 무어라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선사께서

는 법과 지혜, 그리고 덕을 갖추고 교화와 포교를 하신 분”이라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불사를 하셨다. 이제 우리 후학들은 선사의 업적과 유지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지 혜원 스님은 자신보다 신도와 제자를 생각했던 큰스님을 그리고 추모했다. 혜원 스님은 “스님께서는 평생 당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 스님은 무엇이라도 생기면 신도와 제자들을 먼저 살뜰히 챙기셨다”면서 “가르침을 따라 살다보니 불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스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 스님을 추모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을 시정한 후 선원의 도량탑을 재조명해 보는 영상을 통해 스님이 탑을 건립하게 한 배경과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 진정으로 귀의하여 각자 마음 속의 탑을 세우야 함을 일러주시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았다. 이어 스님들이 대행 선사의 <뜻으로 폰 금강경>을 합송하는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각령전에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써 다례제 의식을 마무리하였다.

김주실·신성민 기자



5월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법음이 울려 퍼진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전경.

30만 대중, 불교 역량 확인 실천적 메시지 부족 ‘아쉬움’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 기원대회’ 성과와 과제

불기2559년 연등회와 함께 진행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별다른 사고 없이 원만 회향됐다. 5월 15~17일까지 진행된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였다. 이날 광장에는 종단을 넘어 전국에서 온집한 31만 명의 불자와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모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를 경청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 사상 최대 인원이 온집하는 만큼 무차대회의 초점은 ‘안전’에 맞춰졌다. 주요 분사 총무국장들이 사전에 상경해 이동 동선을 일일이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답사했다. 당일에는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파견된 3000여 명의 포

나 짧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사회에 파급효과를 끼치기 위해서는 홍보를 비롯해 각종 세미나 등 사전 준비부터 캠페인과 같은 사후 활동까지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간화선 무차대회는 대회 자체에만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연세대 철학과 교수)은 “영어 번역 또한 학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법문에 대한 영어번역을 접한 결과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대회 진행이 보다 섬세하고 철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대회 비용부본은 공식 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실령 스님들이 재원을 마련하려다 신도들의 기부행사를 통해 총무원과 교구분사, 공식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무사고 회향 ‘안전 대회’ 의미 준비 짧아... 치밀한 계획 필요 법거랑 없었던 간화선 무차대회

교사들을 자원봉사로 배치해 질서 유지를 유지토록 했다. 주최 측의 노력으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무사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환영 만찬부터 해외 고승 인터뷰, 현충원 참배, 세계 종교인 평화 회의 등 해외 고승과 이웃종교인 220명이 일정에 차질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도 한국불교계의 역량이 발전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사부대중 30만 명이 한곳에 모이는 법석이 펼쳐진 것은 한국불교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최만으로도 의미가 분명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대회를 지켜본 사부대중은 큰 대회를 안전하게 치른 것은 의미가 있지만 치밀한 진행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계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법석을 연 것은 1600년 역사상 처음이지만 그 준비과정은 너무

나 짧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사회에 파급효과를 끼치기 위해서는 홍보를 비롯해 각종 세미나 등 사전 준비부터 캠페인과 같은 사후 활동까지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간화선 무차대회는 대회 자체에만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연세대 철학과 교수)은 “영어 번역 또한 학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법문에 대한 영어번역을 접한 결과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대회 진행이 보다 섬세하고 철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대회 비용부본은 공식 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실령 스님들이 재원을 마련하려다 신도들의 기부행사를 통해 총무원과 교구분사, 공식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종무원이 행복해야 사찰이 행복해요”

전등사, 15일 종무원 전용 숙소 ‘상락원’ 개원

강화도 전등사(주지 범우)가 5월 15일 종무원들을 위한 전용 숙소를 개원했다. 전등사는 지난해 10월 사찰 인근의 여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인수, 4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15일 종무원 숙소 ‘상락원’으로 개원했다. 각 방에 화장실과 거실을 갖추고 있으며 상락원은 1인 1실 기준으로 1층에 남자 숙소 6개, 2층에 여자 숙소 7개가 마련돼 있다.

숙소 이름을 ‘상락원’으로 지은 회주 장운 스님은 “전등사 직원들을 위한 숙소였

던 정형당이 선체협관으로 바뀐 후 경내 곳곳에 생활하던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전등사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에 더 많은 고민을 해 타 사찰에 모범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범우 스님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관을 인수하여 직원들의 보급자리를 마련했다”며 “상락원이란 이름처럼 늘 즐겁고 화합 하면서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강화도 전등사는 5월 15일 인근 여관 건물을 매입·개조해 종무원 숙소인 ‘상락원’을 개소했다.

‘평화의 소녀상’ 동국사에 건립된다

추진위, 8월 15일까지 모금 전개... 日이치노헤 스님 등 동참

군산에서 위안부로 끌려가 삶이 짓밟힌 소녀를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군산 동국사에 건립된다.

군산평화소녀상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승우·김부영)는 5월 18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동국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으며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은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제작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스님이 2014년 동국사에 세운 ‘참화와 사회의 글’ 비석 옆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치노헤 스님과 이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취지에 공감한 일본인들은 약 1500여 만원을 건립비용으로 기부했다.

건립 비용은 모두 5000여 만원으로 추진위는 8월 14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 이상 구좌 모음 운동을 전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노동위, “노조했다고 인권 무시”

5월 20일, 포스코 비판 성명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5월 20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며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앞서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EG테크 분회장이던 양우권 씨가 10일 무노조 방침에 자살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영방침”이라며 “양분회장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G테크 노조지회는 2006년 12월 53명으로 노조 설립하였으나 2008년 포스코 및 EG테크 회의로 노조는 와해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누면 하나되는 세상’



대한불교 실상 산문종

실상선원 선원장 성환

천 축 사 정헌, 성우
용 암 사 지공
천 지 사 천공

대 중 일 동

실상선원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 02)745-8503
천 축 사 |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041)734-2680
용 암 사 |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 054)873-3607
천 지 사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28번지 ☎ 061)322-1498

